

(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고린도전서 12~14장. 성신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고 증거한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영이다. 성신은 또한 영의 다른 은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축복한다. (35~40분)

고린도전서 12장 1~4절을 읽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3절에 따르면, 어떤 중요한 지식이 영의 은사로 오는가?
- 영의 다른 은사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고린도전서 12:4~11; 교리와 성약 46:11~26; 모로나이서 10:8~19. 을 읽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1. 영의 은사의 목록을 만든다.
2. 왜 은사가 주어졌는지 알아본다.
3.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한 가지 은사를 받았는지를 알아본다.
4. 영의 은사로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의 예를 될 수 있는 한 많이 열거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이 구절에 열거된 것들 이외에 다른 은사가 있는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의 다음 말씀을 읽는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은사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봅시다. 질문하는 은사, 귀기울이는 은사, 작고 조용한 음성을 듣고 활용하는 은사, 울 수 있는 은사, 다툼을 피하는 은사, 동의하는 은사, 증언부언을 피하는 은사, 의로운 것을 구하는 은사, 심판하지 않는 은사,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는 은사, 제자가 되는 은사,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은사,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사, 기도드리는 은사, 강한 간증을 하는 은사, 성신을 받는 은사 등이 있습니다.” (Conference Report, 1987년 10월, 23쪽; 성도의 빛, 1988년 1월호, 22쪽)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모든 은사가 똑같이 유용한가? 무엇이 영의 은사를 행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지를 찾아보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읽는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사랑이 왜 가장 중요한 영의 은사라고 생각하는가?

고린도전서 13장 4~7절을 읽고,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묘사하는 일곱 요소와 어떤 것이 사랑이 아닌지를 묘사해 주는 여덟 요소를 열거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사랑의 이러한 요소들이 여러분의 성품의 일부라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사랑의 정의를 알아보고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의 다음 말씀을 읽는다.**

“경건과 완전의 속성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특히 자애(charity)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열렬하게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 사랑은 보통의 사랑(love) 보다도 더 좋은, 훨씬 더 좋은 것이다. 그것은 영원하고도 완전한 사랑으로, 영원히 참아내는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다. 그것은 의에 그 중심을 두고 있는 사랑으로 그것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영혼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한 영원한 복리 이외에는 어떠한 목적이나 소망도 갖지 않는다.” (물론 교리, 121쪽)

마태복음 22장 34~40절을 읽는다. “율법과 선지자”(40절)는 구약전서를 지칭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면, 경전과 사랑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 **모로나이서 7장 46~48절을 읽는다.** 모로나이는 자애(charity)를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 그에 따르면, 우리는 어떻게 자애(charity)를 얻을 수 있는가?

사랑을 간구하는 것은 다른 축복들을 간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이 축복을 받으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사랑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밖의 어떤 것을 할 수 있는가? (요한1서 5:2~3)

고린도전서 13장 8~13절을 읽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사랑을 발전시키는 것이 어떻게 어린아이에서부터 성장하는 것과 비슷한가?

고린도전서 12:13~31. 교회의 모든 회원은 주님과 그분의 교회에 중요하다. (15~20분)

- **고린도전서 12장 13~18절을 읽는다.** 바울은 무엇을 교회 회원에 비유하였는가?
- 그는 육신의 어떤 부분들을 언급하였는가?
- 우리는 어떤 부분 없이 지내고 싶어하는가? 그 이유는?
- 바울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교리와 성약 84:109~110 참조)

고린도전서 12장 19~23절을 읽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조금 약하다거나 고귀하지 못하거나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 말하면서 바울은 누구를 지칭하였는가?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다음 말씀을 읽는다.

“이 교회는 회장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되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이름을 우리 모두가 받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위대한 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모세서 1:39) 그의 사업과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돕고자 우리는 이 곳에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책임의 영역에서처럼 여러분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책임도 중요합니다. 이 교회에서는 어떤 부름도 작거나 대수롭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의 의무를 완수할 때, 타인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각자의 책임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충실하라. 내가 너를 임명한 그 직분을 수행하라. 약한 자를 도우라. 처진 손을 일으켜 세우며,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하라.’(교리와 성약 81:5)” (Conference Report, 1995년 4월, 94쪽; 또는 성도의 빛, 1995년 7월호, 69~70쪽)

고린도전서 12장 24~27절을 읽는다.